

『금계필담(錦溪筆談)』 소재  
〈광묘유일공주(光廟有一公主)〉를 통해 본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문제의식과 그 한계\*

강미정\*\*

— <차 례> —

1. 서론
2. <광묘유일공주>의 서사적 특성과 문제의식
3.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문제의식과 그 한계
4. 결론

〈국문초록〉

조선 후기 야담집인 『금계필담』에 소재한 <광묘유일공주>의 내용이 대중의 관심사가 된 것은 2011년에 <공주의 남자>라는 드라마의 원전으로 알려지면서부터이다. 이처럼 우리의 고전 작품이 현대 드라마와 관련되면서 사랑받는 현상은 그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해답을 찾는 데 기여한다면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두 작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그에 따라 이 글에서는 <광묘유일공주>와 <광묘유일공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각기 강조하고 있는 문제의

\* 이 논문은 2009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61-A00008, 소통·치유·통합의 통일인문학). / 이 논문은 2012년 8월 25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문학치료학회 제106회에서 『『금계필담(錦溪筆談)』 소재 <광묘유일공주(光廟有一公主)>의 서사적 특성과 드라마 <공주의 남자>와의 관련성』으로 발표 후 수정한 것이다. 좌장을 맡아 주신 박기석 선생님과 지정토론을 해주신 김준형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또한 학회장에서 좋은 조언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께도 감사드린다.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식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광묘유일공주>의 주요한 내용은 ‘아버지의 부당함을 제기하여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딸이 독립 한다’는 것이며, <광묘유일공주>는 ‘내 복에 산다 유형’에 속하는 작품임이 밝혀진다. 무엇보다 <광묘유일공주>는 ‘내 복에 산다 유형’에 나타난 아버지의 반성과 딸이 보여주는 용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담고 있다. 덧붙이자면 ‘내 복에 산다’유형에서 용서받는 아버지는 예전에 저지른 과오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보인 데 비하여 <광묘유일공주>에서의 세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 굴레였으므로 변명하는데 그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공주는 일말의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 아버지와의 분리를 선택한다. 그런 점에서 <광묘유일공주>는 아버지의 반성이 절실해야만 딸과의 화해가 가능함을 강조한 작품이기도 하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초반에는 <광묘유일공주>처럼 수양대군에서 세조로 등극하는 아버지의 정치적 야욕에 대하여 경계하고 문제 삼는 세령 공주를 통해 <광묘유일공주>의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초반에 예각화되었던 수양대군과 세령 간의 대립 양상은 매 회를 거듭하면서 점차 흐려진다. 왜냐하면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아버지의 부당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던 세령의 목소리가 점차 아버지에게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세령의 태도 변화와 더불어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세령과 김승유의 애틋한 사랑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광묘유일공주>의 문제의식과 점점 멀어진다. 그리하여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부당한 아버지 세계와는 타협하지 않겠다던 딸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과거의 치열함은 현재의 사랑에 비추다면 덧없는 것임을 강조하는 결말로 마무리된다. 따라서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광묘유일공주>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하여도 그 문제의식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채, 결국 기득권인 아버지의 세력에는 대적할 수 없다는 체념적 결말로 안착하는 한계를 안고 종료되었다 할 수 있다.

주제어 『금계필담』, <광묘유일공주>, <공주의 남자>, 부녀대립, 서사, 문제의식, 내 복에 산다

## 1. 서론

조선 후기의 문인인 서유영에 의하여 1873년에 찬술되었다고 알려진 『금계필담』은 단종과 세조에 얽힌 이야기, 임병양란에 얽힌 이야기, 인조반정에 얽힌 이야기 등 역사적 이야기들을 다채롭게 담고 있는 야담집이다.<sup>1)</sup> 이러한 『금계필담』에 제5화로 소재한 <광묘유일공주>는 세조가 계유정란을 일으켜 단종을 몰아내고 정적을 제거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조의 딸이 크게 한탄하며, 마침내 세조가 단종의 어머니가 묻힌 소릉까지 파헤치려 하자 극구 간언하는 상황과 그로 인한 부녀대립과 이후 사태를 진지하게 풀어낸다. 이와 같은 <광묘유일공주>에 대한 연구는 아버지의 노여움을 타서 출궁할 수밖에 없는 공주에 대한 이야기,<sup>2)</sup> 아버지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고자 고민한 딸의 이야기,<sup>3)</sup> 혹은 아버지의 불의를 거부하고 떠난 딸이 맞이하는

- 1) 장호현, 『서유영 문학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8, 195~196쪽. “『금계필담』 서문에 서의 서유영의 언급을 신빙한다면, 『금계필담』에는 전대 文獻으로부터의 단순한 轉載인 이야기는 없는 셈이다. 그 대신 서유영이 생의 오랜 기간 동안 접한 많은 문헌 가운데에서 기억에 남은 이야기들이 찬술자의 의식의 개입이 수반되면서 변개되어 찬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두드러진 소재로서, 端宗과 世祖에 얽힌 이야기, 壬·丙 兩亂에 얽힌 이야기, 仁祖反正에 얽힌 이야기를 꼽을 수 있는데, 서유영이 일찍이 관심을 기울여 접한 正史, 野史, 雜錄 등의 歷史書類로부터 이에 관한 이야기들이 강한 인상으로 刻印되어 그것이 후일 다양한 삼화로써 『금계필담』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 2) 김승호, 「<쫓겨난 공주>설화의 野談的 승계와 그 의미」, 『동국어문학』 9,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1997, 137~172쪽.
- 3) 김승호는 <광묘유일공주>에 담겨 있는 문제의식으로 사대부 의식을 주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한 바 있다. “참담한 처지로 전락했으나 도리어 더 화려한 위치로 격상하는 <溫達>, <武王>식의 시원한 해결을 세조공주에서도 똑같이 기대한 독자라면 불만이 적지 않을 수 있다. 성스러운 존재는 언젠가 다시 그 성스러움을 회복한다는 구조는 민담과 전설에서 취하는 상투적 전개라면, <세조공주>는 그런 유형의 일방적 추종을 거부하고 있는 셈이다. 편찬자는 해피엔딩적 처리를 몰라서 불투명하게 마무리한 것은 아니겠고 왜곡된 역사의 한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는 자각으로 상투적 마무리를 거부했던 것이다. 추측컨대 이는 설화의 담당층이 사대부나 식자층의 몫으로 넘

새 운명에 대한 이야기<sup>4)</sup> 등으로 전개되어 온 바 있다. 이렇듯 선행 연구 속에서 역사와 설화의 교차지점에서 이해되어 오던 <광묘유일공주>가 현대인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은 2011년 드라마 <공주의 남자><sup>5)</sup>와 이어지면서부터이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그 기획 취지에서부터 『금계필담』에 있는 세조의 딸과 김종서 손자간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임을 홍보한 바 있다.<sup>6)</sup> 그 과정에서 『금계필담』 소재 제5화인 <광묘유일공주>의 내용이

---

어오고 문자화에 따른 야담적 정착의 징후를 드러내는 대표적 마디가 아니었던가하는 생각도 든다.”(김승호, 『<세조공주>담의 야담화 과정과 사대부 의식』, 『한국어문학연구』 33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1998, 196~197쪽.)

- 4) 장효현, 『서유연 문학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8, 199~200쪽. “世祖의 不義를 極諫하다 궁궐을 나오게 되는 공주가 세조에게 죽임 당한 金宗瑞의 손자와 후일 結緣케 된다는 運命을 보여주는 5화(여기에서는 <광묘유일공주>를 가리킴) 역시 불의를 거부하는 행위가 운명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인식을 대변해준다.
- 5) 2011년 7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6일까지 총 24부작으로 방영된 KBS 수목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김정민·박현석(연출), 조정주·김옥(극본), 박시후(김종서의 아들, 김승유 역), 문채원(수양대군의 장녀, 세령 역) 등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픽션사극 드라마라 할 수 있는 <공주의 남자>는 20%대의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였으며, 종영 때에는 시청율이 24.8%까지 올랐었다.
- 6) “기획 취지 (1)시각의 차별화 : 2세대의 이야기-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 들뜬 수양대군이 대신 김종서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 이른바 계유정난이다. 기왕의 사극에서도 심심찮게 다룬 이 사건을 새로운 시각, 즉 ‘관련자들의 2세’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재해석하고자 한다. 수양대군의 딸 ‘세령’, 김종서의 아들 ‘김승유’, 문종의 딸이자 단종의 누이 ‘경혜공주’, 신숙주의 아들 ‘신면’이 바로 그들이다. 『금계필담』 등의 이야기는 수양의 딸과 김종서의 손자의 운명적 사랑을 전하고 있다. 충청북도 백악산에는 두 사람이 피해 살았다는 동굴이 전해지기도 한다. 이 드라마는 수양대군의 장녀와 김종서의 손자와의 사랑이라는 설정을 김종서의 막내아들과의 사랑으로 재설정하기로 한다. 결국 이 드라마는 원수가 되어버린 승유와 세령 간의 운명적인 로맨스물이다. 여기에 승유를 사랑한 경혜공주와 세령을 사랑한 신면이 엇갈린 애정구도를 형성한다. 그들 네 명, 즉 <관련자 2세대>의 눈을 통해 계유정난 전후 역사적 사건들이 담고 있는 숨겨진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라 한 바 있다.([http:// www.kbs.co.kr /drama/princess/about/plan/](http://www.kbs.co.kr/drama/princess/about/plan/))

알려지면서 역사에 묻혀 있던 세조의 딸에 대한 관심은 높아진다. 나아가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금계필담』, 계유정란, 수양대군, 김종서, 김종서의 손자, 세조의 딸 등이 인터넷 상에 자주 떠오르는 검색어가 되고, 종영 즈음에는 역사스페셜에서 『금계필담』을 소개하기에 이른다.<sup>7)</sup> 이로 본다면 <광묘유일공주>의 내용이 우리들의 삶에 자리하게 된 데에는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공이 큰 듯하다. 또 한편으로 <광묘유일공주>와 관련되면서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인상적인 작품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sup>8)</sup> <광묘유일공주>와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만남은 동반상승 효과를 잘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긍정성이 <광묘유일공주>의 내용 일부에 치중되어 이루어진 성과라는 점은 아쉽다. 왜냐하면 <광묘유일공주>와 관련된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성공은 세조의 딸과 김종서의 후손 간의 사랑의 특별함에 힘입은바가 커 보이기 때문이다. 만일 불가능해 보이는 남녀결연의 모습만을 차용하여 드라마가 만들어졌다면, 드라마 <공주의 남자>와 <광묘유일공주>와의 관련성은 그저 홍보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실상은 그

---

7) 2011년 10월 6일(목) KBS역사스페셜에서는 <조선의 역사를 뒤바꾼 계유정란, 세조는 승리했는가?>라는 제명으로 방송하면서 『금계필담』에 실려 있는 세조의 딸과 김종서 손자간의 사랑 이야기 부분을 조명했었다.

8) KBS 2TV ‘공주의 남자’가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시리즈, 시리즈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한국 드라마의 체면을 살렸다. ‘공주의 남자’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2012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쟁쟁한 해외 경쟁작을 제치고 시리즈, 시리즈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2012년 8월 30일 OSEN <공주의 남자>, 핸드 자존심 지켰다 ‘드라마어워즈 최우수상’) 이러한 수상의 이유에 김승유가 세력을 구하려고 말을 함께 타고 달리거나, 세력이 김승유를 위하여 대신 화살을 맞는 등의 극적 장면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장면들이 사극에서는 빈번하게 나온다는 점에서 그 장면이 곧 수상의 기반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조선시대의 야담집에 실려 있는 특이한 이야기를 토대로 하였다라는 점이 작품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인상적인 작품으로 자리 잡는데 유리했으리라 본다.

렇지 않음을 밝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광묘유일공주>의 주 내용은 남녀결연이 아니라 부녀대립이 어떻게 일어나고 풀리는가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광묘유일공주>와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애정은 두 작품 간의 비교를 통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필 것을 재촉한다.

지금까지 고전작품과 현대 드라마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다채롭게 이루어졌다. 그 연구 성과는 한편으로는 현대 드라마와 결합되면서 가치 상승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경우로,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드라마와 구체적으로 결합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분석을 통하여 내재한 고전작품을 발견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테면 소략한 기록(예)9) 풍부한 상상력을 덧 입혀 새로운 작품을 만들거나<sup>10)</sup>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드라마에 뿌리 내린 고전작품의 자취를 발견하는<sup>11)</sup> 연구들이 그러하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드라마가 어떻게 고전을 영

9) 소략한 역사 기록에 상상력을 가미하여 만들어낸 퓨전사극드라마가 일으킨 커다란 반향의 한 사례로는 드라마 <대장금>의 성공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관련되어서 남은경의 『대장금(大長今)관련 기록의 현대적 수용-문화콘텐츠로의 생성과 전개 양상 분석-』에 요약된 다음 언급을 참고할 수 있다. “2003년 텔레비전 사극으로 방영된 드라마 <대장금>은 원래 조선조 『중종실록』에 등장하는 궁중 여의(女醫)에 관한 단편적 역사기록을 토대로 만들어낸 이야기이다. 허구와 역사적 사실을 결합해 만들어낸 사극 <대장금>은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방송드라마로만 끝나지 않고, 소설과 뮤지컬, 그리고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하였다.(중략)대장금이란 이름은 각종 상품명으로 쓰이며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었다.”(남은경, 『대장금(大長今)관련 기록의 현대적 수용-문화콘텐츠로의 생성과 전개 양상 분석-』, 『동양고전연구』 제43집, 동양고전학회, 2011, 33쪽.)

10) 남은경, 『대장금(大長今)관련 기록의 현대적 수용-문화콘텐츠로의 생성과 전개 양상 분석-』, 『동양고전연구』 제43집, 동양고전학회, 2011, 33~64쪽; 황혜진, 『<바람의 나라>의 사례로 본 고전 수용의 상상력』, 『고전문학과교육』 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243~272쪽; 박윤희, 『최근 역사물에 나타난 서사 재구성성의 의미-고구려 관련 사극 <주몽>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19집, 한민족문화학회, 2006, 43~66쪽.

상화하는지와 영상화된 작품이 어떤 요인에 힘입어 흥행가도를 달리게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고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드라마에 대한 분석이 그 작품성보다는 생산성에 집중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리하여 고전에 담긴 문제의식이 어떻게 발현하거나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고민은 상대적으로 한산해지기도 한다. 이로 본다면 고전에 담긴 문제의식의 구현에 대한 논의는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광묘유일공주>가 어떤 서사적 특성과 문제의식을 부각하고 있는지, <광묘유일공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어떤 서사적 특성과 문제의식을 보여주는 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서로 관련성이 있다고 알려진 두 개의 작품 간의 서사비교는 한편으로는 문학치료학적 측면에서의 서사의 다기성을<sup>12)</sup> 살펴볼 수 있는 장점도 갖게 될 것이다. 나아가 서사의 다기성을 탐색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서사가 더 가치로운지 고민케 하면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와 그 해결방식에 대한 여러 모습들도 조망하게 되리라 기대해본다.

---

11) 황혜진, 『한국 드라마로 이어지는 고전서사의 전통-드라마 <적도의 남자>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9집, 겨레어문학회, 2012, 117~144쪽. 이 논문에서는 전통서사와 관계를 표방하지 않았던 드라마 <적도의 남자>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이 드라마가 <선우태자전>과 내용상 겹쳐지는 부분이 많음을 밝히고, 그에 따라 한국 서사문화의 전통이 마치 문화적 유전자처럼 드라마로 전승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12) 서사의 다기성(多岐性)이란 서사가 진행되는 동안 요소요소마다 서사의 분기점(分岐點)들이 있고, 이 분기점에서 다른 서사로 나아갈 수 있는 서사의 갈림길들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서사의 다기성과 관련된 주요 연구로는 정운채, 『서사의 다기성(多岐性)을 활용한 자기서사 진단 방법』, 『고전문학과교육』 제1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08, 107~138쪽; 강미정, 『서사의 다기성에 대한 이해와 해명』, 『문학치료연구』 제1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10, 109~138쪽; 정운채, 『서사의 다기성(多岐性)과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 제2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04, 195~226쪽 등을 들 수 있다.

## 2. <광묘유일공주>의 서사적 특성과 문제의식

이 글에서 <광묘유일공주>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자료로 살펴본 것은 『금계필담(한국인의 미담 일사)』<sup>13)</sup>이다. 이 책에서는 『금계필담』의 제5화를 번역하여 정리하면서 <피눈물로 엮힌 가룩한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한다. 그런데 <피눈물로 엮힌 가룩한 인연>이라는 제목은 세조의 딸과 김종서의 손자의 극적 사랑에 집중된 인상을 준다. 그 보다는 세조 부녀간의 갈등이 더 잘 나타나는 제목으로 바꾸어 부르는 게 나을 듯하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원문의 시작 부분에 나온 “光廟有一公主”를 제목으로 삼아 『금계필담』의 제5화를 <광묘유일공주>로 지칭하면서 논의하기로 한다. 다음에서는 <광묘유일공주>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본다.

- (1) 공주가 아버지(세조)에게 간언을 하다 아버지의 분노를 사게 된다.
- (2) 공주는 어머니의 도움으로 유모와 함께 궁에서 도망치고, 어머니는 아버지께 공주가 요절했다고 알린다.
- (3) 공주가 유모의 조언에 따라 산에서 만난 총각의 집에 머물게 된다.
- (4) 공주와 총각이 혼인 한 뒤 서로의 신분(세조의 딸 : 김종서의 손자)을 알게 된다.
- (5) 공주는 자신의 동네를 우연히 지나가게 된 아버지와 해후하여 궁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듣는다.
- (6) 공주가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남편(김종서의 손자)과 자취를 감춘다.

(1)에서 공주는 아버지의 정치노선에 대하여 묵과할 수 있었지만 아버지의 문제에 대해 간언을 한다. 세조에게 간언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상

13) 김종권 교주, 송정민 외 번역, 『錦溪筆談(韓國의 美談逸史)』, 명문당, 1985, 1~332쪽.

당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인데, 그 누구도 못하는 상황에서 세조의 딸인 공주가 간언을 했다는 것은 세조의 패륜의 심각성과 세조의 딸인 공주의 강직함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다. (2)에서 공주는 아버지의 분노 아래 죽을 수도 있었지만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궁 밖으로 도망치게 된다. 공주의 출궁이 아버지의 강권이 아니고 자발적인 의지의 결과임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다. 물론 어머니의 도움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어머니가 아버지와 같은 권력의 대변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공주가 어떤 큰 힘에 기대어 도움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3)에서 공주는 유모의 조언을 듣지 않을 수도 있지만 조언을 듣고 산에서 만난 총각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공주가 그저 자기주장만 하는 인물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이성적인 인물임을 생각해볼 수 있다. (4)에서 공주는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 총각과의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총각과 혼인 이후 각기 어떤 처지인지를 알게 된다. 각자의 아버지들의 일들을 생각해본다면 두 사람은 원수지간이지만 공주와 총각은 그런 과거에 얽매이지 않기로 하고 가연을 이어 간다. (5)에서 공주는 아버지를 원망할 법도 하지만 막상 아버지가 자신이 사는 곳을 지날 때에 아버지를 만나 그 리움을 드러낸다. 그러한 공주에게 아버지는 함께 궁으로 돌아가자고 한다. (6)에서 공주는 아버지가 함께 궁으로 돌아가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함께 자취를 감추어 아버지와와의 분리를 단행한다. 이러한 내용의 흐름을 통하여 <광묘유일공주>는 ‘아버지에게 간언하였던 공주가 아버지의 분노를 피하여 궁을 나와 아버지와 적대적 관계인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고, 아버지와 해후한 뒤에도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음을 다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세계의 부당함을 당당하게 말하고 아버지와 분리되어 독립하는 공주의 모습은 ‘내 복에 산다 유형’에 속한 작품들의 딸들

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또 한편으로, <광묘유일공주>의 공주는 아버지의 위세로 인하여 축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출궁을 시작으로 자신의 삶을 열어갔다는 점에서 자기 발로 아버지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온 ‘내 복에 산다 유형’의 딸들과 유사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광묘유일공주>를 ‘내 복에 산다 유형’에서 속하는 작품으로 보면서 읽고자 한다. <광묘유일공주>를 ‘내 복에 산다’ 유형에 속하는 작품으로 볼 경우, <광묘유일공주>는 특히 <온달설화>와 가까운 거리에서 그 내용을 비교해볼 수 있다.<sup>14)</sup>

『온달전』의 서사 구조는 좀 더 근본적으로는 『삼공본풀이』나 불전계 민담 ‘내 복에 먹고 산다’형 설화에서 드러나는 바 ‘부녀 대립(父女對立)’의 서사 구조이다. 이 ‘부녀 대립’의 서사 구조에서 업보나 인연, 또는 복과 같은 종교적 신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반론의 여지가 자체 내에서 이미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딸의 완전한 승리로 귀결되는데, 불전계 민담 ‘내 복에 먹고 산다’형 설화나 서사무가 『삼공본풀이』, 또는 ‘쫓겨난 여인 발복 설화’ 등이 이에 속한다.<sup>15)</sup>

위 인용된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온달>은 부녀대립의 서사구조를 갖고 있으며 ‘내 복에 산다’ 유형에 속하는 작품이다. 무엇보다 <온달>에서 드러나는 부녀대립의 양상은 <광묘유일공주>의 부녀대립의 양상과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온달>에서의 평강공주가 아버지에게 허언의 문

14) 김승호 또한 <광묘유일공주>와 <온달설화>와의 관련성을 고민했지만 그 고민의 맥락은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 복에 산다 유형’과 동일하지 않다. (김승호, 『<쫓겨난 공주>설화의 野談的 승계와 그 의미』, 『동국어문학』 9,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1997, 161쪽.)

15) 정운채, 『<유생전>의 이본적 특성과 부녀 대립 양상』, 『先淸語文』 24집 제1호,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6, 597쪽.

제를 제기하여 궁에서 쫓겨난 것처럼, <광묘유일공주>의 공주도 아버지에게 패륜의 문제를 제기하여 죽을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자질에 대하여 간언을 한 평강공주나<sup>16)</sup> 윤리의 근간이 되어야 할 왕이 패륜을 자행하면 되겠느냐며 간언을 한 공주는 모두 딸이면서도 아버지인 왕을 향하여 사회적 윤리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당당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닮은 것이다.

대개 ‘내 복에 산다 유형’에 속한 작품들의 결말은 아버지가 자신이 제대로 듣지 못하였던 딸의 진언을 다시 생각하면서 과오를 뉘우치고, 그런 아버지를 딸은 용서하면서 지난날의 서운함과 상처를 지운다. 그리고 이제 성숙하고 포용적인 입장에 서게 된 딸들은 늙고 병든 아버지를 보살피면서 잃었던 시간들을 메꾼다. 드디어 자기 복에 산다고 주장하였던 딸의 말이 아버지의 세계에 이유 없는 반항으로 평가 절하되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유 있는 항변이었음이 현실적으로 입증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내 복에 산다’ 유형 설화의 흐름을 따라 보자면 <광묘유일공주>는 다소 생경해보일 수 있다. <광묘유일공주>의 결말에서 세조가 찾아왔을 때 공주가 세조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취를 감추는 것은 아버지와의 화해로 마무리되는 이야기들과는 달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왜

16) 이에 대하여 『삼국사기』에 있는 평강공주와 평강왕의 대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평강왕의 어린 딸이 울기를 잘하므로 왕이 희롱하기를 “네가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커서는 대장부의 아내가 될 수 없으니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보내야 하겠다.” 하였다. 왕은 매양 그렇게 말하였는데 딸의 나이 16세가 되어 상부(上部) 고씨(高氏)(110)에게로 시집보내려 하니 공주가 대답하였다. “대왕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는 반드시 온달의 아내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무슨 까닭으로 전의 말씀을 고치시나이까? 필부도 식언(食言)을 하지 않으려 하거늘 하물며 지존하신 분께서야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입금은 헛된 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왕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오니 소녀는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왕이 노하여 말하였다. “네가 나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면 정말 내 딸이 될 수 없으니 어찌 함께 있을 수가 있으랴? 너는 갈 데로 가는 것이 좋겠다.”-『삼국사기』 권45 열전5 온달조.

전반적으로 ‘내 복에 산다’ 유형의 이야기와 유사하면서도 이러한 결말에 도달하는 것인가. 그에 대하여 <광묘유일공주>의 그 대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조는 그 말년에 전국의 절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부처님에게 지난날을 참회하는 기도를 하였는데, 속리산으로 향하다가 마침 공주가 사는 마을을 지나게 되었다. 이 때 한 어린아이가 길 가에 있었는데, 세조가 그 아이의 용모를 자세히 살펴보니 꼭 자기와 같았다. 세조는 이를 기이하게 여겨 수레를 멈추게 하고 앞으로 불렀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의 우는 소리가 울타리 사이에서 들려 나왔다. 세조는 마음이 흔들려 좌우의 신하들에게 묻기를 “이 어인 울음소리인가?” 하자, 어린 아이가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어머니의 울음소리입니다.” 하였다. 세조가 곧 좌우 신하를 물리치고 어린 아이와 함께 걸어서 그 사립문에 이르니, 한 부인이 땅에 엎드려 통곡하고 있었다. 세조는 놀라서 묻기를, “너는 누구인가?” 하자, 공주는 눈물을 거두며 대답하기를, “못난 소녀는 지난 날 아버님의 엄한 책망을 받았는데 어머니의 분부로 유모와 더불어 대궐을 떠나 멀리 피하여 다니다가, 이곳에 이르러 죽지 못하고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나이다”라고 하였다. 세조는 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너를 일찍이 이미 요절한 것으로 여겼구나. 어찌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 있는 줄 알았겠느냐! 너의 남편은 어디에 있느냐?” 하였다. 공주가 대답하기를, “그는 죽은 영상 김종서의 손자입니다. 그도 역시 난을 피하여 이곳에 왔는데 우연히 길가에서 상봉하여 이어 짝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님의 행차가 이곳을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피해서 지금 집에 있지 아니합니다”라고 하니 세조가 탄식하여 말하기를, “김종서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 내일은 마땅히 나오너라. 가마와 말을 보낼 것이니 나와 함께 서울 대궐로 돌아가자. 아울러 네 남편에게도 봉작을 가하리라”하고, 세조는 드디어 수레를 돌렸다. 다음날 세조는 승지를 파견하여 그들을 맞아오게 하였으나 공주는 밤을 틈타 그 남편과 함께 가족을 거느리고 몰래 어디론지 숨어버리니 그 거처를 알아낼 수가 없었다.<sup>17)</sup>

세조는 말년에 부처님에게 참회의 기도를 올리고 다니다가 우연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공주와 만난다. 그러나 세조의 개인적인 참회의 기도만으로는 그가 저질렀던 과오는 청산되지 않은 듯하다. 그것은 세조가 행차하자 공주의 남편인 김종서의 손자가 피하였다는 상황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김종서의 손자가 자리를 피하는 것은 아직도 세조의 위력이 대단하고 위협적임을 생각해 한다. 그리고 세조는 김종서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궁궐로 돌아가자고 할 뿐, 공주가 지난날 때문이라 지적하였던 사안에 대한 깊은 반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삼공본풀이>에서 셋째 딸이 떠난 이후에 완전히 망하여 거지가 되어 버리고, 딸을 만났을 때 과거에 딸을 쫓아낸 일을 깊이 후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나, <무왕설화>에서 서동을 인정하고 존경하는 태도를 보이기에 이르렀던 진평대왕의 모습이나, <온달설화>에서 평강공주의 판단이 적절했음을 인정하면서 온달을 자신의 사위로 인정하고 그 능력을 귀하게 여긴 평강왕의 모습과는 다른 것이다. <광묘유일공주>에서 세조는 딸을 만나 함께 돌아갈 것을 권유하면서,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그저 세상을 다스리다 보면 어쩔 수 없음을 변명하고,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김종서의 후손에 대하여도 봉작을 내린다면 여전히 권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광묘유일공주>에서 공주가 보기에 부당하였던 아버지의 모습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겨졌을 것이다. 그래서 공주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도 접은 채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다. 공주가 생각한 아버지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는 다음의 설화자료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17) 김종권 교주, 송정민 외 번역, 앞의 책, 33~34쪽.

“세조께서 “인제는 서울로 돌아가자. 옛날에는 날 왕위를 맡아 방해하니  
 까 내가 죽일라고 그랬지 지금이야 원수가 있느냐”말야 “갈 수 없습니다”  
 “왜 못가느냐” 하니까 “도저히 저는 아버님과 뜻을 달리하기 때문에 갈 수  
 없습니다”그래 “그런 생각하지 말고 가자”고 그래면서 그래 우뚝게 하고 지  
 내느냐고 그래니까 그래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리이러해서 김종서의 손  
 자를 만나 사니, 우리는, 나는 영원히 그 사람과 살지 아버님 곁을 갈 수 없  
 습니다 말야, 세조께서 말야, 그 사람인들 뉘 원수가 있느냐고 말야, 당시에  
 김종서가 있구는 내가 왕이 자리에 올라 앉을 수 없으니 내가 김종서를 죽였  
 지, 김종서의 손자인들 뉘 나하고 원수가 있냐고, 서울로 가서 이 고생 하지  
 말자.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말야. …그럼 내일 아침에 들어 다 내  
 려 오너라 그 말이야.(중략) 그 초막에 사람이란 없더래요 두 내외가 다 어디  
 로 갔는지 없고는 아주 부지거처없이 갔버리고 말야, 거다 편지를 한 장 말  
 야 딱 냉기고 갔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 말이야. 아무리 말야  
지금은 원수가 없어지고 아버님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말이야 우리는 역적의  
곁에 가서 살 수는 없는 일 아녘니까 말야 우리는 그 단종대왕의 말씀을 어  
 디까지나 모시는 신하로서 말야 역적의 곁을 갈 수 없으니 영원히 떠나간다  
 고 말이야 그후론 어디로 갔는지 없어 못 찾고 갔어요 그 따님을 영원히 못  
 찾았어요.”<sup>18)</sup>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세조를 역적으로 여긴 세조 대왕의 딸>으로  
 소재한 위 설화는 공주가 세조인 아버지의 뜻을 결국 따르지 않았던 이유  
 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공주는 아버지와 눈물의 해후를 하였으나 아버지  
 는 예전의 과오를 왕위를 얻기 위하여 그럴 수밖에 없다고만 이야기할 뿐  
 과오를 다시 바로 잡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하여  
 공주는 뜻이 다르다면서 함께 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자취를 감춘

18) 김선풍, 유기태 조사, 『한국구비문학대계』 2-8, <세조를 역적으로 여긴 세조 대왕의 딸>, 김진홍 구연(남, 58), 한국학중앙연구원, 516~521쪽.

다. 설화에서 그려지는 이러한 내용은 『금계필담』에 소재한 <광묘유일공주>의 내용과 거의 흡사한 것이다.

그런데 <세조를 역적으로 여긴 세조 대왕의 딸>에서는 공주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난다. <세조를 역적으로 여긴 세조 대왕의 딸>에서 공주는 편지를 통하여 아버지는 여전히 단종에게는 역적이며, 그녀는 단종의 신하이며, 공주의 배필인 김종서의 손자 또한 단종의 신하임을 강조한다. 단종의 신하이기를 바라는 부부가 세조를 따라 환궁한다는 것은 곧 역적을 따르는 것이며 그들의 신념을 꺾는 게 된다. 그렇기에 단종의 충신으로 남겠다는 굳은 신념은 역적의 허물을 영원히 벗을 수 없는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것을 거부케 하는 힘이 되고, 아버지와 세계와 분리되는 결과로 이어진다.<sup>19)</sup> 이러한 <세조를 역적으로 여긴 세조 대왕의 딸>의 내용을 참고로 <광묘유일공주>의 공주를 다시 보면, 그녀가 기대하는 것은 단지 아버지로서의 환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공주는 아버지가 그간 저지른 과오의 원천적 성찰을 요구한 것이다. 불의로 구축된 아버지의 세상으로부터의 분리는 의리로 구축할 딸의 세상을 펼치겠다는 숨은 포부와 관련될 수도 있다. 이에 이르면 공주는 일탈이나 좌절 혹은 비극적 운명의 존재에 머물지 않는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기의 옳음을 설파하고 그 의리를 실천할 수 있는 여지를 품은 인물인 것이다.

그래서 세조와의 만남 이후 공주가 자취를 감추는 것은 아버지의 반성이 더 절실해져야 함을 촉구한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공주의 자취 감춤은 아버지의 세계에 대한 좌절이나 회피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삼공본풀이>, <무왕설

---

19) 게다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계기에는 공주가 자신의 남편, 즉 김종서의 손자와 대화를 통한 것이었기 때문에 설화에서는 아버지 보다는 남편의 세계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공주의 태도가 매우 분명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화>, <온달설화> 등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딸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축출되었던 힘없는 존재가 아니라 어느덧 성장하여 아버지의 세상과 맞설만한 힘을 가진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일 <광묘유일공주>에서 공주가 세조의 간곡한 청을 받아들여 그대로 환궁하는 결말로 나아갔다면, 그 결말로 인하여 <광묘유일공주>는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와는 멀어지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광묘유일공주>는 ‘내 복에 산다 형’ 설화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아직 딸의 입지가 다져지지 않은 현실에서는 아버지와의 만남도 한시적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면서 장차 크게 성장해야만 하는 딸의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다시 말하자면 <광묘유일공주>의 결말은 아버지의 진정한 반성과 그런 아버지를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한 딸의 견고한 입지라는 두 개의 조건이 있어야 부녀간의 대립이 마무리되고 화해로운 결말로 이어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내 복에 산다 유형’에서 그려진 아버지의 반성과 딸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비중 있게 확장되어 드러나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 3.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문제의식과 그 한계

어느 문화권이나 어느 시대에나 아버지 세계와의 갈등, 더구나 아버지의 부당함에 대하여 항거할 수밖에 없는 숙명을 지닌 자식들의 힘겨운 노력 등은 늘 관심사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하는가의 문제는 비단 가족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이 시대의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수많은 갈등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자극하고 해결방식을 찾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광묘유일공주>의 내용이 드라마 <공주의 남자>로 재현 되었을 때에 <광묘유일공주>에서 전개되는 문제의식이 현대에는 어떻게 그려지는 가는 당연히 가져야 할 궁금함이고, 관심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묘유일공주>의 문제의식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보기로 한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2011년 7월에 방영이 시작될 무렵부터 드라마 기획취지에 『금계필담』에 실려 있는 수양대군의 장녀와 김종서의 손자의 사랑 이야기를 재설정하면서 원수가 되어버린 두 남녀의 운명적 사랑을 그리겠다는 것을 강조한 작품이다. 이러한 기획 취지만 보아도 <광묘유일공주>의 부녀대립의 양상을 중심에 둔 것은 아닌 듯하다. 하지만 기획취지만으로 작품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왜냐하면 취지는 그렇게 설정되어도 작품이 전개되면서 취지와 달리 이야기가 견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줄거리를 먼저 보면서 그 내용 전반을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 (1) 수양대군의 딸 세령이 경혜공주(문종대왕의 딸) 대신 직강 김승유(김종서의 아들)를 만난다.
- (2) 세령은 계유정란으로 김승유의 집안이 몰락한 후 아버지 수양대군과 대립한다.
- (3) 세령은 자신의 아버지 수양대군을 죽이고자 하는 김승유의 마음을 이해한다.
- (4) 세령은 수양대군에게 잡혀 죽게 된 김승유가 죽게 되자 함께 죽자고 한다.
- (5) 세령의 어머니 정희대비가 김승유와 세령을 죽은 것처럼 위장하여 감옥에서 빼낸다.

(6) 세령과 김승유는 아버지의 세상을 잊고 시골의 촌부로 행복하게 살아간다.

총24부로 방영된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계유정란을 배경으로 수양대군과 김종서의 대결과 수양대군의 딸 세령과 김종서의 아들 김승유의 애정담이 결합되어 전개된 바 있다. 위 줄거리는 <광묘유일공주>의 공주와 같은 입장인 수양대군의 딸 세령을 중심으로 드라마가 방영된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1)에서 (6)에 이르는 6가지 단락들은 (1)은 1부를 중심으로, (2)는 8부~11부, 16부~18부, 20부를 중심으로, (3)은 10부~11부, 14부~18부, 23부를 중심으로, (4), (5), (6)은 24부를 중심으로 간주된 것이다.<sup>20)</sup> 이 중에서 (2)의 세령이 아버지와 수양대군과 대립하는 부분과 (3)의 세령이 수양대군을 죽이고자하는 김승유를 이해하는 부분<sup>21)</sup> 모두 수양대군과 세령의 갈등을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들이다. 그렇기에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8부~23부에 이르기까지 수양대군과 세령의 갈등을 지속적으로 다룬 작품이라 할 수 있다.<sup>22)</sup>

특히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는 아버지가 왕위에 오른 뒤 단종의 폐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세령이 통탄하며 스스로 궁을 나가버렸는데, 이러한 세령의 모습은 소릉을 파헤치려는 세조에

20) 각 부별 줄거리는 이 논문에서 부록으로 첨부한데서 찾을 수 있다.

21) 아버지인 수양대군에게 칼을 겨누려는 김승유를 이해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가 죽음의 위협을 스스로 자초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딸의 입장에서 생각하였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김승유의 복수를 저지하지 않으려는 세령의 태도는 곧 아버지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세령의 마음에 따른 행동이기도 한 것이다.

22) 계유정란을 일으키고, 왕위를 빼앗기 위한 수양대군의 계략과 그 실천에 대한 부분의 경우 1부에서 16부에 나타난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세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양대군의 잘못에 해당되고, 수양대군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사실 극중에서도 세령은 8부 이후로 반복적으로 수양대군의 권력욕에 대한 우려나 비난을 끊임없이 제기한다.

게 극간하고 궁을 나갔던 <광묘유일공주>의 공주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이기도 하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김종서의 아들로 등장하는 김승유와 세령이 부부의 인연을 맺는 상황은 <광묘유일공주>의 김종서의 손자와 공주가 부부의 인연을 맺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처럼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수양대군(세조) : 세령(세령공주), 수양대군(세조) : 김승유의 갈등 관계를 통해 <광묘유일공주>속의 세조 : 공주, 세조 : 김종서의 손자의 갈등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와 함께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광묘유일공주>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내용을 확장시킨 지점도 있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와 <광묘유일공주>가 유사하면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경계는 줄거리 (3)에 나타난 것처럼 복수심을 품고 실천하려는 김승유, 그런 김승유의 복수심을 만류하는 세령, 김승유와 세령의 죽음을 빙자하여 도피시키는 정희대비 등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김승유는 세조를 향하여 계속 복수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려 하지만 무산된다. 이러한 복수담의 확장은 <광묘유일공주>에 등장하였던 김종서의 손자가 세조의 영향권 아래 살 수 없다며 독립한 양상과 유사해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광묘유일공주>와 멀어지는 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광묘유일공주>에 등장한 김종서의 손자는 세조와 대면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은 채 세조의 세상과 선을 긋고 분리된 삶을 고수했었기 때문이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 마지막 회인 24부에서 김승유는 수양대군을 향한 모든 항거가 실패로 돌아간 뒤 승법사에 머물고 있다는 수양대군을 암살하려고 잠입했다가 포박되어 더 이상 살아날 방도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만신창이로 감옥에 누워 있는 김승유에게 세령이 찾아와 “같이 가요”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죽음도 함께 하겠다는 바람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다. 극중 상황으로 보아 두 사람이 감옥 밖으로 나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전혀 다른 작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교묘하게도 <광묘유일공주>와 완전히 달라지는 그 지점에서 <광묘유일공주>의 결말과 유사하게 옮겨갈 계기를 마련한다. 그러니까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24부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김승유와 세령 앞에 세조의 비인 정희대비가 나타나 ‘두 사람은 오늘부터 죽은 것이니 멀리 떠나 나타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광묘유일공주>의 내용으로 선회하는 기점에 해당된다.

동시에 정희대비와 같이 부모의 입장에 있는 인물이 자식을 거짓 죽음으로 위장하여 살 방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은 설화 <거짓장례로 개가시킨 딸><sup>23)</sup>의 내용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 <거짓장례로 개가시킨 딸>은 청상과부로 살아가는 딸을 불쌍하게 여긴 아버지가 딸이 죽었다고 거

23) 『문학치료서사사전』에는 <거짓장례로 개가시킨 딸>이라는 편명 아래 7편의 설화 줄거리가 소개되어 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구비문학대계] 6-4, 527~530쪽, 주암면 설화46, 가문에 먹칠 않고 딸 개가시킨 정양파, 고평옥(남, 81) (1)정양파가 딸을 하나 두었는데, 그 딸이 시집을 가서 상부(喪夫)를 해 과부가 되어 친정살이를 했다. (2)정양파가 밤마다 집 안 순회를 하면서 보니 며느리 방에서는 손자의 웃음소리가 나고 딸의 방에서는 한숨소리만 들리는 것이었다. (3)정양파의 집에 종살이를 하는 평안도 이서방이 있었는데, 하루는 정양파가 이서방을 불러서 내 딸을 데리고 나가 살라고 했다. (4)정양파는 그 날 저녁으로 보물을 싸 주며 딸과 이서방을 보내 버렸다. 그리고는 집안 식구들을 모아 놓고 거짓 장사를 지냈다. (5)정양파의 아들이 몇 년 후에 평안도 잠행어사로 나가게 되었는데 어떤 아이 하나가 걸 어기는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 (6)정양파의 아들은 아이에게 성과 나이, 집을 물어 보았다. 그리고 아이를 따라 그 집에 가 보니 팔 년 전에 자기 집에서 종살이 하던 이서방의 아이였다. (7)게다가 그 집에는 누이동생이 이서방과 살고 있었다. 정양파의 딸은 오빠에게 인사를 하며 “나는 아버지 음덕(陰德)으로 두 세상을 삼니다.”라고 했다. (8)정양파의 아들이 서울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인사를 하러 가서는 “잘 다녀왔습니다. 저승까지 갔다 왔습니다.”라고 했다. (9)정양파는 아들이 딸 집에 갔다 온 것을 알아채고 딸이 무고한지 물었다. 정양파의 아들은 매형을 인재로 추천해 훌륭한 벼슬을 주었다.

짓 장례를 치루고 딸이 다른 남자와 멀리 도망가서 살 수 있는 방도를 열어주고, 훗날 딸이 잘 살고 있음은 아들의 입을 통하여 듣게 된다는 내용을 지닌 설화이다.<sup>24)</sup> 이 설화에서는 과부로 살아가는 딸이 안타까워 거짓 장례라는 편법을 사용하는 부모가 등장하는데, 그 내용이 <공주의 남자>의 정희대비가 김승유의 죽음 이후 혼자 아이를 키울 운명에 처한 세령이 애처로워 거짓장례로 세령과 김승유를 도피시키는 내용과 닮아 보이는 것이다. <거짓장례로 개가시킨 딸>과 유사한 내용의 설정은<sup>25)</sup> <공주의 남자>가 아버지의 힘에 의하여 패퇴하고 만 결말로 가지 않고 <광묘유일공주>의 결말과 가까운 쪽으로 선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동시에 <거짓장례로 개가시킨 딸>과 같은 내용의 개입으로 인해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광묘유일공주>의 문제의식과는 다른 문제의식으로 마무리된다.

왜냐하면 <광묘유일공주>는 궁에서 나온 공주가 아버지와는 전혀 다

24) 이 글을 학회에서 발표할 때 지정토론을 맡아 주셨던 김준형 선생님께서 <거짓장례로 개가시킨 딸>의 구전설화 내용과 흡사한 문헌야담으로 『靑邱野談』의 <憐孀女宰相囑窮弁>를 소개해주신 바 있다. 또한 토론 과정에서 드라마에는 다양한 야담작품들이 개입된다는 설명도 덧붙여 주신 바 있다. 이러한 조언은 작품을 이루는 여러 화소들의 다양성을 논의할 때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거짓장례로 개가시킨 딸>의 언급한 이유는 드라마 <공주의 남자>를 <광묘유일공주>와 유사한 결말로 옮기는데 기인하면서 동시에 <광묘유일공주>의 예민한 문제의식을 희석한 측면도 있음을 보여주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드라마 <공주의 남자>와 같이 퓨전사극 형식으로 만들어진 드라마가 다양한 작품들의 집적임을 밝히는 논의는 또 하나의 새로운 논문을 기획할 때에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5) <거짓장례로 개가시킨 딸>의 개입이라는 현상을 통하여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작가가 다양한 정보를 어떻게 소화하여 창작을 이루었는가를 밝힐 수도 있겠지만, 이 글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다. 이 글은 <광묘유일공주>를 원전으로 표방하면서도 다른 내용으로 옮겨갔던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거짓장례로 개가시킨 딸>이라는 내용을 징검다리 삼아 다시 <광묘유일공주>의 내용과 유사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거짓장례로 개가시킨 딸>의 개입 여부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는 하나의 이야기기가 원래 의도대로 진행되기 위하여 선회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른 입장의 김종서의 손자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되었다면,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세령과 김승유는 어머니의 뜻에 따라 도피할 수 있는 여지를 얻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광묘유일공주>에서 공주가 아버지와 만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과 자신의 뜻이 맞지 않은 탓이라면,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세령이 아버지를 만나지 않는 이유는 아버지의 힘에 의하여 제압당할 것을 두려워한 탓이 크다.

그리고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세조가 세령이 오두막에서 살고 있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떠나는 장면은 <광묘유일공주>의 결말에서 아버지와 딸이 서로 만나고 다시 헤어지는 장면과도 같지 않다. 그 모습은 <광묘유일공주>의 결말보다는 <거짓 장례로 개가시킨 딸>의 결말과 닮아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짓 장례로 개가시킨 딸>과 가까워지면서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결과적으로는 <광묘유일공주>와 거리를 두게 된다. 왜냐하면 <거짓 장례로 개가시킨 딸>은 속 깊은 아버지가 딸의 미래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장악하고 있는 내용이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기에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거짓 장례로 개가시킨 딸>을 개입시키면서 <광묘유일공주>와 닮은 양상으로 나아가는 듯 했으나, <거짓 장례로 개가시킨 딸>의 내용에 견인되면서 심층적으로는 <광묘유일공주>과 분리되는 결과를 갖게 된 것이다.

또 한편으로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마지막 장면은 아버지의 세상을 잊고 살면 그로써 행복할 수 있다는 체념적 분위기를 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마지막 장면에서 세령은 눈이 멀어 버린 김승유와 함께 말을 타고 들판을 달리면서 김승유에게 ‘자신으로 인하여 세조에게 복수를 하고자 하던 마음을 버린 일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이에 대하여 김승유는 “눈은 잃었으나 마음의 눈은 얻었고 복수는 잃었으나 그대를 얻었다”라고 답한다. 아주 낭만적으로 보이는 이 장면은 인상적인 장면으로 알려져 있

기도 하다. 그러나 이 장면으로 인하여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광묘유일공주>의 문제의식과 아주 멀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동안 세령과 김승유가 전력을 다했던 아버지의 부당함에 대한 질책은 희석되고, 아버지를 바로잡기보다는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지켜내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장면은 변화가 어려운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회피와 좌절을 담고 있기에 부녀대립의 화해를 요원하게 만든다.

이처럼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광묘유일공주>의 강력한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는 부당한 아버지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음에 대한 제언을 무화시키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할 수 있다는 로맨스물로 전환된다. 그 결과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광묘유일공주>의 내용을 잘 따라간 듯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식의 전승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또한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이와 같은 마무리는 초반에 아버지 수양과 딸인 세령과의 독대장면을 통하여 아버지 수양의 문제점이 강렬하게 비판되었던 드라마의 내용과도 떨어진 것이다. 하나의 작품 내에서도 일관된 주장이 유지하지 못한 문제를 드라마 <공주의 남자>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sup>26)</sup> 정리하자면,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시작은 <광묘유일공주>와 유사하게 출발했지만 결국 기득권인 아버지의 세력에는 대적할 수 없다는 체념으로 마무리되는 다른 결말로 나아간 것이다. 그

---

26) 이에 관하여 역사적 흐름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변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매회 시작할 때마다 이 작품은 역사적 기록을 각색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출발했고, 기획취지에서는 <광묘유일공주>의 내용을 토대로 하면서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의 내용을 다루겠다고 표방했었기 때문이다. 역사적 기록의 재현이 아니라고 강조하였기에 세조의 세력이 탄탄했다는 역사의 방향에서 자유로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결과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부당한 아버지 세계에 편입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낸 <광묘유일공주>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지 못한 한계를 남기게 된다.

#### 4. 결론

조선 후기 야담집인 『금계필담』에 소재한 <광묘유일공주>의 내용이 대중의 관심사가 된 것은 2011년에 <공주의 남자>라는 드라마의 원전으로 알려지면서부터이다. 이처럼 우리의 고전 작품이 현대 드라마와 관련되면서 사랑받는 현상은 그 나름의 의의를 갖고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현상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더 나은 해답을 찾는 데 기여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되려면 두 작품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이 글에서는 <광묘유일공주>와 <광묘유일공주>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진 드라마 <공주의 남자>에서 각기 강조하고 있는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광묘유일공주>의 서사적 특성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광묘유일공주>의 어떤 내용을 잘 구현하고, 어떤 내용을 새롭게 구성했는지 탐색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풀어갔다.

그에 따라 <광묘유일공주>의 주요한 내용은 ‘아버지의 부당함을 제기하여 아버지로부터 쫓겨난 딸이 독립 한다’는 것이며, <광묘유일공주>는 ‘내 복에 산다 유형’에 속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었다. 또한 <광묘유일공주>는 ‘내 복에 산다 유형’에 나타난 아버지의 반성과 딸이 보여주는 용서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담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덧붙이자면 ‘내 복에 산다’ 유형에서 용서받는 아버지는 예전에 저지른 과오에 대한 진

정성 있는 반성을 보인 데 비하여 <광묘유일공주>에서의 세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은 어쩔 수 없는 역사적 굴레였음으로 변명하는데 그친 측면이 있었다. 그런 아버지에 대하여 공주는 일말의 미련도 남기지 않은 채 아버지와 분리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광묘유일공주>는 아버지의 반성이 절실해야만 딸과의 화해가 가능함을 강조한 작품이라 할 것이다.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경우에도 <광묘유일공주>처럼 수양대군에서 세조로 등극하는 아버지의 정치적 야욕에 대하여 경계하고 문제 삼는 세령 공주를 통하여 <광묘유일공주>의 문제의식을 이어가고 있는 듯했다. 그렇지만 초반에 예각화되었던 수양대군과 세령간의 대립은 매 회를 거듭하면서 점차 희석되었다. 왜냐하면 드라마가 전개되면서 아버지의 부당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던 세령의 목소리가 점차 아버지에게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세령의 태도의 변화와 더불어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세령과 김승유의 애틋한 사랑을 점점 강조하면서 <광묘유일공주>의 내용과 점차 거리를 두게 되었다.

결국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부당한 아버지 세계와는 타협하지 않으리던 딸의 목소리를 약화 시키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과거의 괴로움은 사랑 아래에 그저 허무한 것임을 강조하는 내용에 그치게 되었다. 따라서 드라마 <공주의 남자>는 <광묘유일공주>와 같은 부녀대립으로부터 출발했어도 그 문제의식을 충실히 풀어가지 못하였다. 그렇기에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광묘유일공주>를 기반으로 하여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식을 온전히 이어가지 못한 한계를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자료

KBS 기획 드라마 <공주의 남자> 1~24부

\* 논저

- 강미정, 「서사의 다기성에 대한 이해와 해명」, 『문학치료연구』 제1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10, 109~138쪽
- 김승호, 「<쫓겨난 공주>설화의 野談的 승계와 그 의미」, 『동국어문학』 9,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1997, 137~172쪽.
- \_\_\_\_\_, 「<세조공주>담의 야담화 과정과 사대부 의식」, 『한국어문학연구』 33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1998, 196~197쪽.
- 김중권 교주, 송정민 외 번역, 『錦溪筆談(韓國의 美談逸史)』, 명문당, 1985, 1~332쪽.
- 김준형, 「19세기말~20세기 초 야담의 소설화 과정과 <백련전>」, 『우리어문연구』 29집, 우리어문학회, 2007, 201~238쪽.
- \_\_\_\_\_,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 『동방한문학』 39집, 2009, 53~89쪽.
- 남은경, 「대장금(大長今)관련 기록의 현대적 수용-문화콘텐츠로의 생성과 전개 양상 분석-」, 『동양고전연구』 제43집, 동양고전학회, 2011, 33~64쪽.
- 박윤희, 「고구려와 한민족문화; 최근 역사물에 나타난 서사 재구성의 의미 -고구려 관련 사극 <주몽>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19, 한민족문화연구, 2006, 43~66쪽.
- 심경호, 「원전 연구와 고전 텍스트의 현대적 변용」, 『동양한문학연구』20, 동양한문학회, 2004, 53~69쪽.
- 이강옥, 「‘六美堂記’와 ‘錦溪筆談’의 비교분석을 통한 소설과 야담계 서사체의 관계 양상 고찰」, 『한국학보』 12집 1호, 일지사, 1986, 121~145쪽.
- 이은애, 「역사드라마의 “징후적 독해”: 거대담론과 작은 이야기의 공존 가능성으로서의 역사 드라마」, 『한국문예비평연구』 30,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9, 221~269쪽.
- 장효현, 『서유영 문학의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8, 1~300쪽.
- 정운채, 「<유생전>의 이본적 특성과 부녀 대립 양상」, 『先淸語文』 24집 제1호, 서

울대 국어교육과, 1996, 585~606쪽.

정운채, 『서사의 다기성(多岐性)을 활용한 자기서사 진단 방법』, 『고전문학과교육』 제10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08, 107~138쪽

\_\_\_\_\_, 『서사의 다기성(多岐性)과 문학연구의 새 지평』, 『문학치료연구』 제2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2.04, 195~226쪽

황혜진, 『<바람의 나라>의 사례로 본 고전 수용의 상상력』, 『고전문학과 교육』 7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243~272쪽.

\_\_\_\_\_, 『한국 드라마로 이어지는 고전서사의 전통-드라마 <적도의 남자>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9집, 겨레어문학회, 2012, 117~144쪽.

ABSTRACT

The Critical Mind and the Limits of Drama <the Man of Princess(공주의 남자)> through the <Kwangmye's Princess(光廟有一公主)> in 『Kum-Kye pil-dam(錦溪筆談)』

Kang, Mi-jeung

<Kwangmye's Princess> in 『Kum-Kye pil-dam』 is anecdote with a conflict and collapse between King Sejo and King Sejo's daughter. The contents of <Kwangmye's Princess> has began to make a mark when it came into use as the original of the drama <the Man of Princess> in 2011.

The phenomena of increasing interest about the historical context or original work of reproducing our classic work for a modern, like these, is very positive. But, this positive interest or phenomena is need to b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ritical mind between the original work and it's reproduction for more firmness and durability. That's the point of recognizing the work which is based on the classic in relationship to the descriptive properties of the work.

In this article, I searched the critical mind and the descriptive properties of <Kwangmye's Princess> in 『Kum-Kye pil-dam』, and suggested how to use it in drama <the Man of Princess>. First of all, I suggested that the main contents of <Kwangmye's Princess> is the type of 'living one's own fortune' because that the daughter has independence from her father by claiming father's irrationality. At the same time, the father's self-reflection and daughter's forgiveness unfolding in a very natural way in the type of 'living one's own fortune' is the reanalysis point in <Kwangmye's Princess>.

Most of the father who have been forgiven by his daughter under the her catholicity, in the type of 'living one's own fortune', is naturally led to deep self-reflection about his past mistakes. But, In the <Kwangmye's Princess>, 세조 recommend princess to return the palace saying that what

he committed was historical cycle and it was out of his control. About the father, the princess selected the separation with father never left any her feelings.

In this point, <Kwangmye's Princess> show us to the message which the dramatic reconciliation between father and daughter need to be father's deep self-reflection, and to long for actualizing justice carried out by the mouth of daughter. And drama <the Man of Princess> seems to make the critical point of <Kwangmye's Princess> reality through the appearance of princess Sereong who makes question and is alert the father's political ambition becoming King Sejo from Sir Suyang Daegun like <Kwangmye's Princess>.

But, which is opposed sharply earlier, antagonism between father and daughter is diluted. Because, as the drama continues, the main contents moves into affecting love between Kimseungyo who stands at the opposite of Sir Suyang Daegun and Sereong. As the result, <the Man of Princess> is different <Kwangmye's Princess> in the view of context and the critical point of the work is changed incorrectly.

Thus, <the Man of Princess> and <Kwangmye's Princess> had similar start point, but <the Man of Princess> has finished with different and resigned end that she never overcome her father who has vested interest. Because the daughter's voice saying the father's irrationality acerbically in <Kwangmye's Princess> is disappeared. As the result, <the Man of Princess> became the limit and had some distance with <Kwangmye's Princess> which has a critical point - I can not return and admit the father's unfair world-strongly.

**Key Words** 『Kum-Kye pil-dam』, <Kwangmye's Princess>, <the Man of Princess>, Conflicts between a Father and Daughter, Epic, The Critical Mind, Living one's own fortune

논문투고일 : 2013. 04. 15
심사완료일 : 2013. 05. 28
게재확정일 : 2013. 06. 02

## 부록 드라마 <공주의 남자>의 줄거리

총 24부작인 드라마 <공주의 남자>를 각 부별로 정리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부

- (1) 수양대군의 딸 세령은 평소 말타기를 좋아하여 마굿간에서 아버지의 말을 빼어 말을 탔다가 그만 발목을 접지르고 말았다. 그 일로 말미암아 세령은 어머니에게 꾸중을 들었으나, 아버지 수양대군은 세령의 그런 기질이 자신을 닮은 것이라 여겼다. 수양대군은 병약한 문종의 뒤 이어 왕위에 오를 야심을 갖고 좌의정 김종서에게 자신의 장녀인 세령과 김승유의 둘째아들과의 혼사를 바라면서 김종서 집안에 혼담을 넣었다
- (2) 그리고 얼마 후 세령은 경혜공주(문종대왕의 딸)의 부름을 받아 궁에 들어갔다가 경혜공주의 독선생으로 김승유가 강독을 하러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공주에게 혼담이 오가는 김승유와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내비쳤다. 강독을 하는 것이 무척이나 싫었던 경혜공주는 좋으면서 세령에게 자신의 옷을 입혀 공주 노릇을 하도록 허락하였다.<sup>27)</sup>
- (3) 수양대군이 밀서를 김종서에게 보냈다는 소식을 접한 문종은 직접 김종서를

---

27) 그리고 경혜공주는 세령이 타고 온 가마에 올라 궁 밖으로 외출을 하였다. 경혜공주는 가마를 타고 가면서 저자거리를 구경하였는데, 그 때 우연히 가마 안으로 빛에 떠 밀려 도망치던 정종을 잠시 만났다. 정종이 가마 안으로 피신해 들어왔다가 경혜공주의 미색에 놀랐는데 경혜공주는 정종의 따귀를 때렸고, 정종은 빗쟁이에게 끌려 나갔다. 끌려가면서도 정종은 경혜공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으며 경혜공주는 그런 정종을 못마땅하게 바라보았다. 나중에 경혜공주는 문종대왕이 사위로 삼고 싶어하던 김승유가 아니라, 수양대군의 음모에 의하여 부마의 자리에 오른 정종과 결혼하였고, 결혼이후에도 저자거리에서 보았던 정종의 초라한 모습으로 인하여 한동안 불화하였으나, 단종을 위해 애를 쓰는 정종의 굳은 심지에 감동하면서 사랑에 빠지게 되었으나, 정종은 단종 복위 사건에 휘말려 능지처참을 당하였다. 경혜공주는 혼자 정종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정미수, 성종조 이후의 벼슬아치)을 키우며 살아갔다.

불러 김승유를 경혜공주의 부마로 삼겠다는 뜻을 밝히고, 김종서는 문종의 청을 받아들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양대군은 김종서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며 자객을 이용하여 김승유를 죽일 계획을 세웠다.

- (4) 한편 세령은 몰래 짐의 말을 타고 나왔다가 말이 갑작스럽게 달리는 바람에 위기에 처했는데 마침 근처를 지나던 김승유에 의하여 가까스로 위험에서 벗어났다.
- (5) 집으로 돌아온 김승유에게 김종서는 부마로 내정되었음을 알려주고, 김승유는 낮에 구해주었던 공주(사실은 수양대군의 딸인 세령)의 얼굴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 2부

- (6) 세령은 기방에 맡겨 두었던 말을 찾으려고 갔다가 기방 앞으로 지나던 김승유를 만났다. 김승유가 왜 공주가 쫓겨 밖 출입을 하느냐고 묻자, 자유롭게 말을 타고 싶다고 답하였다. 그 말을 들은 김승유가 세령과 함께 말을 타고 가면서 말타기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다.
- (7) 수양대군은 김승유가 부마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객을 보내어 김승유의 뒤를 쫓게 하였다. 자객들은 김승유가 어떤 여인과 말을 타고 교외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다가 한적한 곳에서 화살을 쏘았다. 김승유가 자객들에 의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세령이 자객들의 칼날을 가로 막으며 스승을 죽이지 말라고 소리쳤다. 자객들은 세령의 기개에 잠깐 주춤하였으나 둘 다 죽여주겠다면서 다가섰다.
- (8) 그 때 김승유의 친구인 신면이 부하 송자번과 함께 나타나 자객들을 모두 물리치고 김승유와 세령을 구하였다.
- (9) 한편 문종은 경혜공주에게 어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김종서 집안과 혼인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경혜공주는 그 말을 듣고 세령을 불러들여 김승유는 곧 부마가 될 것이니 만나지 말라고 하였다.

### 3부

- (10) 한편 수양대군은 김종서와 손을 잡는 것에 실패하자, 신숙주와 손을 잡기로 하고 신숙주에게 혼사를 제의하였다.
- (11) 세령은 말타기를 가르쳐준 김승유에게 보름날에 시장에서 만나자고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예전에 옷을 빌려 입었던 기생집 앞에서 기다렸다. 김승유는 세령이 공주라고 믿어서 다시는 궁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엄금했지만, 혹시나하여 기생집 앞으로 갔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만나 저자거리를 즐겁게 돌아다녔다.
- (12) 궁에 들어가 강독을 하게 된 김승유는 공주를 기다렸으나, 공주가 몸이 좋지 않아 강독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세령과 함께 저자거리를 구경할 때에 세령 몰래 샀던 옥가락지와 편지(숲에서의 다쳤던 일도 추억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음)를 공주에게 전해달라고 하였다.
- (13) 경혜공주는 김승유가 전해준 옥가락지 한 쌍과 편지를 받고 세령과 김승유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다. 경혜공주는 화가 나 편지를 쉼 안 정원에 던져 버렸다. 경혜공주는 김승유를 불러들여 자신이 진짜 공주임을 밝히고, 그동안 공주라 만난 사람은 일개 궁녀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김승유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 (14) 경혜공주의 부름을 받고 옆방에 앉아 있던 세령도 경혜공주가 스스로 김승유에게 신분을 밝히는 것을 들었다. 세령은 자신이 김승유에게 거짓을 고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수양대군의 딸임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낙담하였다.

### 4부

- (15) 김승유는 부마간택에 들기 위하여 궁으로 들어갔다. 한편 수양대군은 길에서 김승유를 죽일 계획이 실패하였기에 김승유를 죽일 함정을 계획하고 있었다.
- (16) 그리고 수양대군의 명을 받은 왈패들이 저자를 돌아다니며 기웃거리다가 우연하게 기생집의 한 기생이 김승유가 공주와 돌아다니더라고 떠드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말을 엿들은 한명희의 측근인 청풍관의 율패가 한명희에게 보고하였다. 한명희가 그 일을 수양대군에게 보고를 하고 김승유를 하옥할 계획을 다 세워 두었다.

- (17) 김승유는 부마간택을 위하여 입궐한 당일에 공주를 희롱한 죄로 문종의 친국을 받게 되었다. 경혜공주가 직접 나와서 김승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였으나 수양대군의 측근의 신하들이 김승유의 참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 (18) 세령은 자신으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처한 김승유를 만나 자기가 사실은 수양대군의 딸이라는 것을 밝히려려고 감옥으로 향하였다. 감옥에서 김승유에게 세령이 자기 신분을 밝히려던 차에 수양대군이 감옥으로 들어와 세령을 보게 되었다.

## 5부

- (19) 세령은 곧 간수에 의하여 끌려 나가고 수양대군은 여염의 여인을 옥사에 들인 죄가 매우 크지만 문책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간수들이 모두 물러가자 수양대군은 자초지종을 물었고, 세령이 공주의 행세를 하면서 김승유와 만났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 (20) 수양대군은 곧 이러한 사실(세령이 공주 행세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혜공주를 찾아가서 만일 자기 자식을 위협하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김종서는 아들인 김승유를 살리기 위하여 수양대군을 찾아갔고, 수양대군의 계획대로 김종서는 사직을 하게 되었다.
- (21) 문종은 김종서가 사직을 하자 크게 충격을 받았다. 수양대군은 자식을 위하여 벼슬을 내놓은 것을 참작하여 김승유에게 삭탈관직의 처벌을 내렸다. 김종서는 집으로 돌아온 김승유가 무릎을 꿇으며 자기의 못남을 탓하자 앞으로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지 말라면서 김승유에게 멀리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라고 하였다.
- (22) 김승유 대신 부마로 뽑힌 사람은 한미한 집안의 선비인 정종이었다. 경혜공주는 정종과 혼사를 올리는데 그 혼례날 문종이 오랜 병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았다. 김승유는 문종이 위독하다는 소문을 듣고 급히 급히 한양으로 돌아왔다.

## 6부

- (23) 한양으로 돌아오던 김승유는 예전에 세령과 함께 그네놀이를 하였던 그네터를 지나다가 동지승들과 함께 걸던 세령을 발견하였다. 그를 본 세령은 자신으로 인하여 옥살이를 한 김승유에게 사과를 하려 하지만, 김승유는 외면하고 떠났다.
- (24) 문종이 승하하기 전에 금성대군을 불러 자신의 유지를 적은 교지를 남겼다. 금성대군은 그 교지를 김종서에게 전달하였다.
- (25) 마침내 문종이 승하하자 수양대군은 어린 단종을 위협하여 정권을 이양한다는 전언을 하도록 준비하였다
- (26) 그 때 김종서가 문종이 남긴 교지를 들고 나타나 수양대군의 무리를 궁밖으로 몰아내었다.

## 7부

- (27) 승법사에서 탑돌이를 하는 세령을 찾아간 승유는 자신의 연정을 고백하고, 세령은 자신의 신분을 밝혀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서 김승유에게 궁녀로 행세하였다.
- (28) 김종서는 어린 단종을 보좌하기 위하여 수양대군의 세력을 하나하나 쳐내고, 그 과정에서 수양대군과 손을 잡았던 신숙주는 쉼 안에서 대신들에게 모멸적인 언사를 듣게 되었다. 민발치에서 아버지 신숙주가 모욕당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신숙주의 아들 신면은 훗날을 기약하였다.
- (29) 수양대군은 자신의 권세를 되찾기 위하여 김종서를 처버릴 계획을 세우다가 자신의 딸 세령이 김승유와 다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양대군은 세령에게 그 집으로 다시 혼담을 넣겠다고 회유한 뒤에 자신의 부인에게 반드시 김종서와 그 아들을 죽일 것이라는 다짐을 하였다.

- (30) 아버지 수양대군이 자신에게는 혼사를 다시 이어주리라는 희망을 주고 실상은 김종서의 집안을 척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알게 된 세령은 아버지의 음모를 김승유에게 전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미 세령이 김승유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수양대군은 세령을 집에 감금하였다.

## 8부

- (31) 세령은 버선발로 도망쳐서 김종서의 집을 찾아갔으나, 신발도 신지 않고 흐트러진 모습을 한 세령의 모습에 김종서와 그의 첫째 아들은 그저 미친 여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곧 이어 세령을 쫓아온 하인들에 의하여 세령은 김종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말았다. 세령은 집으로 끌려가면서 김종서의 대문 앞에 서 있는 김승유의 어린 조카를 보고 그 아이도 불행에 빠질 것이라 생각하며 슬퍼하였다.
- (32) 세령은 집안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몸종에게 애걸하여 김종서 집안의 김승유에게 자신이 주는 편지를 전해달라고 하였다. 세령의 몸종은 주인의 간청에 못이겨 피로 쓴 편지를 김승유에게 전해주었다. 김승유는 그 편지를 전해 받고 절에 기거하는 세령이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하여 절로 향하였다.
- (33) 밤이 되자 수양대군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김종서의 집을 찾아갔다. 수양대군은 김승유가 세령에게 보낸 편지를 갖고 김종서를 찾아가 편지를 내밀어 읽어보게 하였다. 김종서가 자기 아들이 수양대군의 딸인 세령에게 보낸 연서에 놀라는 순간 수양대군의 측근이 김종서에게 쇠몽치를 휘둘렀고, 비명에 뛰어난 김종서의 큰 아들인 김승규도 죽었다.

## 9부

- (34) 절에 아무도 없음을 이상하게 여긴 김승유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형과 아버지가 죽은 뒤였다. 김승유는 통곡을 하다가 아버지가 아직 살아 있음을 발견하여 아버지를 피신시키고 경혜공주의 사저로 찾아갔다.
- (35)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신면이 장악하고 있었다. 김승유는 자신의 친구인

- 신면이 경혜공주의 사저를 지키고 있자, 반가운 마음에 다가서려 하지만 곧 이어 신면이 수양대군의 편에 서서 대신들을 처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 (36) 김승유는 몰래 공주의 사저에 잠입하여 경혜공주의 남편이자 자신의 친구인 정종에게 김중서가 살아 있음을 알리다가 신면에 발각되어 붙잡히고 말았다. 수양대군은 신면에게 김승유를 풀어주고 그 뒤를 밟아 김중서를 찾아낼 것을 지시하였다.
- (37) 세령은 가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몰래 엿듣고 경혜공주의 사저로 향하였다. 그러나 세령이 도착하였을 때 김승유는 이미 떠나고 없었으며, 경혜공주로 하여금 김중서와 김승유의 죽음이 모두 세령 탓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세령은 자신이 아버지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서 김승유에게 수양대군의 딸임을 밝히지 못한 것을 자책하였다.
- (38) 한편, 김승유는 김중서가 숨어 있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고, 그곳에서 수양대군이 미행시킨 자객들의 습격을 받았다. 그 습격으로 이미 상처가 깊었던 김중서는 그 자리에서 죽었고, 김승유는 가사 상태에 빠졌다.
- (39) 청풍관의 왕패들은 김중서의 목을 베고, 김승유는 목도 베려고 하였으나, 한 때 김승유의 죽마고우이기도 했던 신면은 직접 친구를 물어준다고 하면서 김승유를 떠매고 산으로 갔다. 신면은 그곳에서 김승유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으나 차마 죽이지 못한 채 버리고 떠났다.

## 10부

- (40) 살아난 김승유는 귀신같은 물골로 거리로 나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와 형의 목이 효수되어 거리에 걸려 있는 것을 보았다. 김승유는 통한의 울음을 울고 홀홀단신으로 수양대군을 죽이러 찾아갔다. 그곳에서 칼을 겨누고 수양대군에게 달려들려던 김승유는 수양대군의 자식들 중에서 세령을 발견했다. 세령도 김승유와 눈이 마주쳤다. 그러나 곧 김승유는 수양대군을 향하여 칼을 겨누고 달려들었고, 신면의 심복인 송자번에게 바로 제압되어 투옥되었다.

- (41) 처형의 위기에 놓인 김승유를 구하기 위하여 세령은 아버지 수양대군에게 그를 살려만 달라고 간청하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진을 하겠다며 목에 칼을 대고 시위를 하였다.
- (42) 수양대군은 자신의 딸 세령이 죽을 각오로 김승유를 살리려는 상황과 금성대군과 단종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이 더 이상 김종서의 무리들을 참형하지 말라는 압박에 몰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김승유와 김종서의 무리들을 참형하는 것을 멈추고 강화도로 귀양 보내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11부

- (43) 감옥에 갇힌 김승유에게 세령이 찾아가 그동안 진실을 밝히지 못한 죄스러움을 사과하였지만, 김승유는 분노에 치를 떨며 세령의 목을 졸랐다. 세령은 그런 김승유에게 반항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수가 김승유의 손을 떼어 놓았다. 세령은 꼭 살아서 자신에게 복수를 하러 오라고 김승유에게 당부하였다.
- (44) 김승유의 친구였던 신면은 세령이 목숨을 걸고 김승유를 지키려 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술에 취하여 김승유를 찾아갔다. 신면은 김승유에게 그 여인이 너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면 믿겠느냐고 했으나, 김승유는 자기와 상관없는 여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김승유는 형수와 조카 등을 신면에게 부탁하였으나, 신면은 왜 내가 역적의 식솔을 거두어야 하느냐며 거절하였다. 신면은 낙담하는 김승유를 뒤로 하면서 운명을 탓하라고 하였다.
- (45) 한편 수양대군의 세력은 안평대군이 단종을 죽이려 하였다는 함정에 빠뜨려 사약을 내리게 하였고, 강화도로 떠나는 배를 침몰시켜 죄인들을 몰살시키기로 하였다. 결국 안평대군은 사사되었고, 강화도로 귀양 가는 배에 탄 수많은 죄인들은 물귀신이 되고 말았다.

## 12부

- (46) 그러나 김승유는 자신의 옆에 결박되어 있었던 빙옥관의 방주인 조석주의 도움으로 배에서 탈출하여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양대군 수하

에 있는 한명회의 부하인 자객들이 무인도까지 따라와서 김승유를 추격하였다. 섬에서의 추격 끝에 김승유는 자객들을 죽이고 조석주와 함께 섬을 빠져 나오게 되었다.

- (47) 조석주는 김승유를 자신의 근거지인 객잔에 머물게 하였다. 수양대군은 신숙주의 아들인 신면과 자기 딸 세령의 혼인을 추진하였다.
- (48) 경혜공주와 정종은 세령의 혼례날에 수양대군을 암살한 계획을 금성대군과 함께 세웠다. 신면이 세령을 만나러 오자, 세령은 친구와 친구의 가족을 죽인 것에 대하여 크게 비난하였다.(아버지 수양대군의 명에 따라 행동한 신면에 대한 비난은 아버지의 처사에 대한 비난이기도하다) 신면은 그런 세령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김승유의 형수인 류씨와 아강을 노비로 보내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옮겨 놓고, 세령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였다.
- (49) 김승유의 형수와 조카가 안전한 것을 확인한 세령은 신면에 대하여 예전처럼 증오만을 보여주지 않고 고마움을 표하였다. 신면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세령에 대한 연심을 고백하였다.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김승유가 지켜 보았다.

### 13부

- (50) 김승유는 조석주의 근거지인 빙옥관에 머물면서 형수와 조카의 소식을 수소문하다가 둘 다 죽었다는 소식에 처절하게 복수를 결심했다.
- (51) 세령의 혼례 때에 수양대군을 암살하고자 했던 금성대군의 계획은 금성대군 수하의 배신으로 수양대군에게도 알려지게 되었다.
- (52) 수양대군은 금성대군의 계획을 역 이용하여 정종과 경혜공주까지 다 죽일 음모를 꾸몄다.
- (53)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김승유는 세령의 뒤를 미행하면서 세령을 납치할 기회를 노렸다.

## 14부

- (54) 김승유는 드디어 세령의 혼례날에 짐꾼으로 가장하여 수양대군의 집으로 들어가 세령을 납치하였다. 김승유는 납치한 세령을 빙옥관에 가두어놓았다. 혼례날에 신부가 납치되는 소동이 벌어져 수양대군을 암살하려던 금성대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리고 금성대군은 한명회의 계약에 의하여 한 성부에 투옥되고 말았다. 신면은 자신의 신부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 수소문을 하다가 빙옥관까지 들이닥치게 되었다. 조석주는 김승유가 감금해놓은 여인이 혼례날에 납치되었다는 소문이 퍼진 수양대군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두 사람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 (55) 김승유는 세령을 산속으로 끌고 가면서 죽이겠다며 칼을 겨누고, 세령을 미끼로 수양대군을 산속으로 유인할 계획을 세웠다. 세령은 수양대군으로 인해 복수의 화신이 된 김승유를 안타깝게 여겼다.
- (56) 한편 수양대군은 딸의 목숨을 담보로 수행원 없이 갓바위로 나오라는 편지를 받고 갑옷을 속에 감추어 입고 약속장소로 나갔다. 김승유는 복면을 하고 세령을 끌고 갓바위로 나갔는데 이미 그곳에는 신면의 무리들이 매복하고 있었다.
- (57) 김승유는 수양대군을 향하여 화살을 날렸으나, 수양대군은 갑옷을 입고 있었기에 죽지 않았다. 그 모습에 당황한 김승유에게 매복하고 있었던 신면이 화살을 겨누었다. 세령은 김승유를 구하려고 김승유 앞을 가로 막아 그만 신면의 화살을 맞고 말았다.

## 15부

- (58) 김승유는 자기 대신 화살을 맞은 세령을 두고 조석주 일행에 끌려 도망쳤다. 뒤이어 세령에게 달려온 수양대군과 신면은 세령의 중상에 크게 놀랐다. 수양대군은 세령을 잃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신면은 왜 세령이 몸을 날려 화살을 맞았는지 생각하다가 복면을 한 남자가 김승유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 (59) 병옥관으로 피신한 김승유는 복수심에 불타 세령도 죽이고, 수양대군도 죽이려고 하였다가 세령이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몸을 날린 것에 혼란스러워했다. 조석주는 차라리 그 여자를 데리고 도망가서 평범하게 살라고 충고했지만, 김승유는 그 충고를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괴로워했다. 세령은 이제 신면과의 혼인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신면은 세령을 납치했던 일당을 잡으려는데 혈안이 되었다. 단종은 금성대군과 정종을 처형시키려는 수양대군의 위세에 놀려 왕위를 이양할 뜻을 굳힌다.
- (60) 수양대군을 도왔던 온녕군이 자객에게 피습 당하였는데 죽은 자리에 놓인 대호리는 피로 쓴 글귀로 인하여 장안에는 김종서의 귀신이 종친을 잡아간 것이라는 소문이 퍼졌다. 수양대군과 신면 등은 그 대호가 김승유일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 (61) 화살을 맞은 일로부터 가까스로 살아난 세령은 김승유가 자신의 아버지 수양대군이 강화를 가려던 배를 난파시켜 죄수들을 모두 죽음에 몰아넣은 사악한 자라고 했던 말과, 경혜공주가 수양대군이 왕위를 노려왔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아버지에 대하여 더욱 실망감이 커졌다.

## 16부

- (62) 결국 단종을 압박하여 왕위를 이어 받은 수양대군에게 세령은 이제야 성에 차느냐면서 만일 대호라 불린 김종서 대감이 살아 있었어도 아버지가 감히 왕위를 빼앗을 수 있겠느냐고 힐난하였다. 그런 말을 하는 세령을 신면은 끌고 가 당연히 궁에 들어가 공주가 되라고 강요했다.
- (63) 세령은 아버지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칼에 들어가 공주의 작위를 받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김승유는 단종을 끌어내리고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을 죽이려 했으나, 조석주의 충고로 자제하면서 우선 수양대군의 오른팔이라 할 수 있는 신숙주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온녕군의 죽음으로 김승유가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의심한 신면이 아버지 신숙주 곁을 맴돌아 신숙주를 죽이는데 실패하고, 오히려 신면의 칼에 부상을 입

고 말했다.

- (64) 신면은 조석주와 양숙인 객잔의 공칠구로부터 강화에서 난파한 배로부터 살아남은 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빙옥관을 수색하게 되었다. 빙옥관에 숨어 지내던 김승유는 발각당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빙옥관 근처로 달려온 세령에게 이끌려 위기를 모면하였다.

## 17부

- (65) 세령은 김승유를 이끌고 그의 형수인 류씨 부인과 조카 아강이 숨어 사는 곳으로 갔다. 류씨부인은 세령이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음을 털어놓고 김승유는 세령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되었다.
- (66) 세령은 신면에게 앞으로 누구와도 혼례를 치르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신면은 그것이 모두 김승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김승유에 대한 증오심이 더 깊어졌다. 결국 궁궐로 들어가게 된 세령은 궁에 들어가기 전에 경혜공주를 만나, 자기 마음속의 공주는 오직 경혜공주 뿐이며, 아버지가 도리를 모르는 임금이 되면 힘껏 막겠다고 속마음을 털어 놓고 떠났다.
- (67) 한편 김승유는 경혜공주 사저로 가서 자신의 친구 정종과 마침 함께하고 있던 스승 이개를 만났다. 이개는 김승유에게 자객으로 돌아다니면서 대호라는 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복수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개는 지금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수양(이미 즉위하였으나, 김승유와 이개 등에게 수양대군은 여전히 수양대군이다)을 차단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함께 하겠느냐고 물었다. 김승유는 스승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 18부

- (68) 세령은 경혜공주의 부마인 정종을 만나 김승유의 자객행위를 막아달라는 말을 하려고 왔다가 오히려 김승유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세령은 아버지와 연인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다.
- (69) 그날 밤 세령은 경혜공주가 매우 아프다는 전갈을 받고 경혜공주 사저로

향하였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녀를 기다린 것은 경혜공주가 아니라 김승유였다. 김승유는 세령의 아버지를 죽일 뜻을 밝히면서 그 아픔을 주게 되는 자신을 잊으라고 당부했다.

- (70) 세령은 차라리 이런 복수를 하지 말고 자신과 함께 도망쳐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김승유는 그 어디든 수양의 세상이라며 세령을 떠나보냈다.

## 19부

- (71) 이개 등의 집현전 학자들이 계획하였던 사신연에서의 수양대군 암살시도는 집현전 학자 중 배신자가 있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김승유는 사병들을 이끌고 궁으로 침입하고자 했으나 이미 드러나 버린 거사 계획으로 인하여 부하들을 모두 잃고 신면과 대적하게 되었다.
- (72) 사신연에서 한꺼번에 투옥된 학자들과 정종, 이개 등은 모두 그들의 죽음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다. 김승유는 투옥된 사람들을 도망시키기 위하여 잠입하였으나, 도망자가 되기보다는 역사에 남을 죽음을 선택한 스승과 친구 앞에서 오열하고 말았다.
- (73) 사육신 사건으로 이개와 성삼문을 비롯한 집현전 학자들은 모두 처형을 당하였다. 정종은 경혜공주의 애원으로 겨우 목숨을 건져 귀양을 떠나게 되었다.

## 20부

- (74) 세령은 아버지 세조가 상왕인 단종을 폐위시키려 함을 알아차리고, 단종 폐위를 막고자 하였으나, 세조가 세령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자 그동안 잘못 된 길을 가는 아버지를 자신이 바로 잡기를 바랬으나, 더는 그렇게 할 수 없음을 탄식하며 아버지와 자식의 인연을 스스로 끊겠다고 다짐하였다. 세령은 자신의 멍기 머리를 끊어내고 궁을 나가 지낼 것을 선언하고 궁에서 나와 승법사로 은둔하러 들어갔다.
- (75) 궁에서 나온 세령은 경혜공주를 찾아가 자신은 아버지의 인연을 끊고 나왔음을 알린다. 경혜공주에게 자신이 승법사에 기거할 것임을 알린 세령은 승법

사로 떠났다. 승법사에 세령이 있음을 알게 된 김승유는 승법사로 세령을 만나러 왔다가 세령이 신면에게 끌려갈 위기에 처한 것을 알게 되었다.

- (76) 김승유는 무작정 세령을 자신이 기거하는 빙옥관으로 데려와 미래를 함께 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한양에 남아 있는 김종서의 옛 부하들과 함경도로 옮겨가서 수양을 치기 위한 새로운 거사를 계획하기에 이르렀다.
- (77) 세령이 사라진 사실을 안 신면은 빙옥관으로 포위망을 좁혀오고 빙옥관 사람들이 위협하였다. 세령은 자신으로 인하여 도움을 주었던 빙옥관 사람들이 위협에 처하는 것을 보고 순순히 신면의 손에 이끌려 궁으로 돌아갔다.

## 21부

- (78) 세조는 자신의 뜻을 어기며 쫓겨 밖으로 함부로 나갔던 세령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며 신면의 노비가 되라고 하였다.
- (79) 신면은 노비가 된 세령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좋은 방으로 안내하였다. 신숙주는 아들의 세령에 대한 집착을 걱정스럽게 보았다. 한양에 수양대군이 자신의 딸을 폐서인하여 신면에게 노비로 주었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다.
- (80) 함경도에 가서 거사를 준비하려던 김승유는 그 소문을 듣고 빙옥관의 조석주 등과 함께 신면의 집으로 잠입하였다. 신면의 집에서 세령을 구출한 김승유는 곧장 정종이 귀양 가 있는 시골로 달아났다.

## 22부

- (81) 신면은 세령을 데려간 것이 김승유임이 분명함을 깨닫고 사방으로 사람을 풀어 김승유의 행적을 쫓았다. 김승유와 세령은 정종과 경혜공주와 잠깐会后 하였다. 그러나 신면 일행이 추격해오는 흔적을 발견한 김승유는 세령을 숨겨두고 홀로 정종의 집 근처로 잠입하였다.
- (82) 하지만 숨어 있던 세령은 신면 앞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신면은 세령을 인질로 잡고 김승유에게 빨리 나타나라고 소리쳤다. 김승유는 신면에게 화살을

쏘아 혼란을 일으키고 세령과 함께 도망쳤다. 그런데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정종이 감추고 있던 거사의 계획(금성대군과 함께 세조를 치려던 계획)에 대한 편지가 발각되고 말았다. 그 일로 인하여 정종은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 (83) 정종은 거사를 계획한 죄인이 되어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었다. 경혜공주는 정종의 유언대로 일부러 처형일지를 늦추어 김승유에게 전했고, 김승유가 정종이 죽은 뒤에야 사형장에 도착하고 오열하였다.
- (84) 김승유는 수양대군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함길도에 가서 이시애와 함께 거사를 일으키는 것을 서둘렀다. 한편 궁궐에서 나와 우연히 세령을 만난 세령의 몸종은 세조의 아들이자, 세령의 동생인 세자의 병이 심각함을 알렸다.

### 23부

- (85) 김승유와 함께 말을 타고 가던 세령은 갑작스럽게 내린 비에 빈집에 잠시 머물기로 하였다. 그 곳에서 두 사람은 불안한 미래를 알면서도 동침을 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김승유는 함길도로 다른 일행들의 뒤를 따라가고, 세령은 궁궐로 들어가 세자의 간호를 자처하였다.
- (86) 세령이 돌아오자 세자는 차도를 보이는 듯하였으나, 결국 세상을 뜨고 말았다. 세조는 분노에 차서 세령에 대한 모든 기록을 지우고 자신에게는 세령과 같은 딸은 없었노라고 소리쳤다. 그리고 세령은 또 다시 신면의 노비가 되었다.
- (87) 신면은 세령을 데리고 함길도 토벌의 길에 나서면서 세령의 눈앞에서 김승유를 죽여 버리겠다고 다짐하였다.
- (88) 신면의 노비가 되어 함길도까지 가게 된 세령은 신면이 급습할 것이라는 정보를 김승유에게 전하기 위하여 훌훌단신으로 말을 타고 반군의 은거지로 향하였다.

### 24부

- (89) 반군들은 세령이 첩자라고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으나, 김승유가 신면의 여종

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가 세령임을 확인하였다. 김승유는 반군 두목인 이시애에게 자신의 아내로 세령을 소개하였다. 곧 닥칠 거대한 전투 앞에서 김승유는 세령에게 승법사로 가서 자신을 기다리라고 하였다.

- (90) 반군들의 수양을 향한 공격이 실패로 돌아간 후 겨우 살아남은 김승유는 수양대군에게 복수를 다짐하면서 서울로 돌아왔다. 마침 세조와 정희대비는 승법사로 찾아와 세령을 만나게 되었다.
- (91) 세조가 승법사에 있다는 소문을 들은 김승유는 세조가 대웅전에 있을 때 급습하였다. 세조는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는 김승유에게 세령이가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 말에 흠칫한 사이에 김승유는 세조의 측근들에게 포박되었다.
- (92) 잔인한 고문아래 만신창이가 된 김승유가 있는 감옥으로 세령이 찾아왔다. 세령은 김승유에게 같이 가자면서 기대었다.
- (93) 김승유와 세령의 죽음은 정희대비의 입을 빌어 세조에게 전해졌다. 정희대비는 손수 두 아이를 묻었으니 무덤까지는 파헤치지 말라고 세조에게 엄포를 놓았다. 사랑하던 딸을 잃은 세조는 깊은 슬픔에 빠졌다.
- (94) 세월이 흘러 세조는 늙고 병들었다. 어느 날 시골로 행차하는 데 멀리서 김승유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자세히 보니 눈이 멀어 장님이 된 김승유가 아이와 함께 오두막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 (95) 세조는 김승유의 뒤를 밟아 오두막을 살펴보았다. 그곳에서 자신의 딸 세령이 나와서 아이와 김승유를 반기는 것을 세조는 먼 발치에서 바라보았다. 세조는 어느새 옆에 선 정희대비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하고 그곳을 떠났다.
- (96) 사실은 정희대비가 김승유가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앞두었을 때, 세령을 감옥에 보내어 면회를 시키고, 두 사람이 모두 오늘부로 죽은 것으로 할 것이니 멀리 떠나 살라고 한 것이었다. 죽은척하여 쫓겨 밖으로 나온 세령과 김승유는 멀리 시골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다.
- (97) 김승유는 이제는 눈이 멀어 혼자 말을 탈 수 없기에 세령과 함께 말을 타고

들판으로 나갔다. 세령이 자신으로 인하여 멈춘 일을 후회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승유는 “눈은 잃었으나 마음의 눈은 얻었고 복수는 잃었으나 그대를 얻었다”고 답하였다.

출처 : KBS 기획 드라마 <공주의 남자> 1~24부